

상반기 학생회 예산, 총학생회 45.4%

학복위 예산 작년대비 상승, 예술대 단과대 증가 높아

지난 1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각 공개기구와 단과 학생회의 예산편성을 인준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9일에 상반기 예산회의가 열려 각 공개기구와 단과 학생회가 1학기 동안 진행할 사업이 논의되었다.

총학생회 및 공개기구

▲ 총학생회 '소통'의 상반기 주요 사업은 단연 대동제다. 대동제 예상 총액은 1천8백1십1만 8천원이며 여기에 학교 측의 지원을 추가로 받아 진행된다. 초청가수 비용은 지난 학기와 비슷한 800만원, 무대·음향·조명이 750만원이 책정되었다. 장호철(경영 4) 총학생회장은 "지금까지 주점 중심으로 운영된 대동제가 아닌 학생들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미겠다"고 제안했다. 방중에 실시될 농촌연대활동(이하 농활)에는 515만 5,000원이 책정되었다. 장호철 총학생회장은 "이벤트 모든 학생들이 모여 한 곳으로 갈 예정이다"며 농활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 총대의원회는 581만 6,000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예산총액이 편성되었으며 대의원 학교가 383만 5,000원

총학생회 및 공개기구



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학생복지위원회는 시험기간 간식배부에 142만 5,000원, 작년부터 이어온 금연캠페인에 116만 3,000원을 책정했다. 상주사업으로 보드게임, 플라로이드 카메라, 스포츠용품 대여 등이 포함된다. 또 기행단, 씨네마테이 등의 비용이 추가되어 총 예산비용 5,233,000원이 작년(315만 5,000원)과 대비해 가장 많이 상승되었다. ▲ 졸업준비위원회는 대기업면접가이드북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300대 기업을 중심으로 각종 기업 채용, 면접 자료를 정리한 책으로 4학년에게 우선 발급된다. 가이드북을 위한 예산에 6백만원이 편성되었다.

단과대 학생회



▲ 동아리연합회는 총 256만 5,000원의 예산을 가져갔다. 이들은 학술 및 이벤트 프로모션 공모전, 동아리 연합회 대동제 주점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점의 수익금은 동아리 MT 및 공모전에 지원될 예정이다.

단과대학 학생회

1학기 단과대 예산은 예술대가 540만 5,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인문대, 사과대, 공대 순이다. ▲ 인문대 학생회는 매달 'A4U 데이' 등 인문대생을 위한 이벤트 행사를 열고 있다. 인문대 체전과 소모임 지원도 추진된다. 각 과에 10만원을 지원하

며, 한 과에 2개의 소모임을 지원하게 된다. 총 예산은 392만 8,100원이다.

▲ 사과대 학생회 예산은 283만 8,400원으로, 사회과학대 소식지와 사대체전, 우수 소모임 지원에 각각 25만원, 84만 3,400원, 50만원을 편성했다. 학기말에 발간 예정인 소식지는 사회과학대 학생회의 활동이 실려 학생들이 하여금 학생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리는 사업이다. 사대 체전에 참가하는 과에게는 모두 상금이 주어진다.

▲ 예술대 학생회는 시험기간에 야식을 지원한다. 김현중(인테리아 4) 예술대학 학생회장은 "지난 해 증강고사 기간에는 500명을 대상으로 야식을 지원했는데 3일 만에 동이 나 받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에 학생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야식 지원을 꼽고 있다"고 전했다. 야식지원에 1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또한 대동제 때 예술대 프리마켓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과대 학생회는 공대체전에 82만 3,400원의 예산을 할애했으며 그 외 소모임 지원, 계절라성 이벤트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과대 총 예산은 241만 8,400원이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헌혈하는 당신이 아름답다.' 지난 6일 오후 한 남학생이 헌혈을 하고 있다. 인문대 A4U 학생회는 이날 동부적십자사와 함께 우천시에서 헌혈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인문대 학생회의 'A4U데이' 이벤트 중 하나로써 '나눔'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제2의 도약, '한성미래위원회' 구성돼

한성학원 이희순 이사장은 우리학교 정주택 총장과 이종수(행정학과)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한성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한성미래위원회는 1년 동안 활동하며 우리학교가 50주년이 되는 2023년을 중기계획으로, 2040년을 장기계획으로 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한성미래위원장 이종수 교수는 "한성대의 발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한성미래위원회를 꾸리게 되었다"며 "교수 뿐만 아니라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한성대학교 발전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한성미래위원회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개교기념일(10월 5일)에 한성미래위원회에서 논의된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성미래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부위원장 이상한(경제학과)교수, 위원 박준철(역사문화학부)교수, 서영운(영어영문학부)교수, 민태욱(부동산학과)교수, 최해주(패션디자인전공)교수, 명광주(시각·영상디자인전공)교수, 최기흥(기계시스템공학과)교수, 김간사(김택자영어영문학부)교수, 이창원(행정학과)교수

김명희 기자 kmh77@hansung.ac.kr

사이버강좌, 피드백 기능 등 질적 향상 요구돼

"인기강좌, 사이버강좌로 만들어졌으면"

우리학교의 사이버강좌가 학생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한정된 강좌와 동일한 강의 방식의 사이버강좌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불만을 사왔다. 송희웅(행정 3) 학생은 "현재 서울권역 E-Learning 지원센터(이하 E-러닝)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리의 이해, 컴퓨터 활용실습 두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지난 학기에 우리학교의 사이버강좌 두 과목을 들었는데, E-러닝의 사이버강좌와 비교해 보면 질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우리학교 사이버강좌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학교 사이버강좌는 책 내용을 토대로 수업이 진행하다보니, 수업 양이 많아따라가기 힘

들다. 또 학생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없고, 교수의 일방적인 수업으로 진행된다 보니 강의에 흥미를 가질 수 없고 강의를 켜놓고 듣지 않는 이들도 많다"며 사이버강좌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E-러닝의 사이버강좌에선 찾을 수 없다. E-러닝 사이버강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양대학교를 통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우리학교를 포함해 서울 내 대학 학생들이 이곳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이곳의 강의는 애니메이션 효과로 수업이 진행되며, 수업 중간에 퀴즈와 함께 다른 학생과 의견을 주고 받는 시간이 있다. 학생들이 강의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꾸며진 것이다. 정영만(학사지원팀) 팀장은 "이런

기능을 우리학교 사이버강좌에서 시행하기는 힘들다. E-러닝의 경우 2009년에 만들어져 우리학교보다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강의의 질이 높아졌다"며 "우리학교는 2000년도 초부터 LMS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사이버강좌를 만들고 있는데 E-러닝의 기능을 추가하려면 소프트웨어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이버강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이버강좌운영위원회에서는 3.5미만의 강의평점을 받은 교수에게 콘텐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이버강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사이버강좌 과목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도 있다. 조상희(경제 4) 학생은 "경영학부의 회계학이나 마케팅 같은 수업의 경우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 수업을 듣지 못하는 타과 학생이

많다"며 "경쟁률 높은 과목을 사이버강좌로 만들어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사이버강좌의 폭이 넓어지길 기대했다.

정영만 팀장은 "사이버강좌 운영을 신청하는 교수가 적고 경험이 있는 교수가 계속 신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강좌가 진행된다. 또 사이버강좌가 많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과대학별 2과목과 교양학부 2과목으로 총 10개 사이버강좌만 열 수 있다"고 사이버강좌의 적은 수에 대해 설명했다.

박형선 기자 phstian@hansung.ac.kr

사 명

수용기자임	윤민현(역사문화 1)
김동규(행정 1)	이정대(행정 1)
김영호(행정 1)	

졸준위, 올해 졸업앨범 업체 선정

"사진 촬영 후 바로 확인 하세요"

지난 6일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의 주최로 총의관 소강당에서 졸업앨범 품평회가 열렸다. 허준식(경영 4) 졸준위장은 "졸업앨범 업체 선정에 관한 PT발표와 학우들의 설문지 작성으로 가장 반응이 좋은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품평회 설문지는 각 업체별로 7개의 조사항목이 들어있으며 조사항목에는 '시안이 우리 학교와 어울리는가?' '디자인이 고급스러우는가?' 등의 5점 척도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다. 학생들이 각 업체에 대해 평가한 후, 마

지막장에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을 고르는 방식이었다. 허준식 위원장은 "설문지 조사결과 학우들의 의견 8 : 졸준위 2로 진행하였는데 학우들과 졸준위 투표결과 1위로 A스튜디오 (광개토 스튜디오)가 선정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품평회에 참여한 학생명단과 조사결과를 감사기간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작년 졸업앨범 촬영 때는 공지가 늦어 학우들에게 촬영준비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한 점과 수점 척도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다. 학생들이 각 업체에 대해 평가한 후, 마

앨범 촬영은 5월 초·중으로 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주 중에 업체 측과 정확한 날짜를 잡아 빠른 공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광개토대왕 스튜디오는 이날 "다양한 배경에 촬영을 할 수 있다.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과 1:1로 사진을 수정함으로써 만족도를 증가시킬 생각이다"며 "사진촬영과 동시에 노트북에서 사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제4회 한성대신문사 사진공모전

기간 : 2010년 5월 13일~5월20일
대상 : 한성대학교 전 구성원(학부, 대학원, 교수 및 교직원)
주제 : 자유(주제의 제약이 없음)
제출형식 : 8×10크기로 인쇄해 제출
제출장소 : 학생회관 제1별관(우리은행맞은편 건물 2층) 한성대신문사
발표 : 한성대신문 439호(6월 7일 발행)
상금 : 금상(1명)-상장 및 상금 30만원
은상(1명)-상장 및 상금 20만원
동상(1명)-상장 및 상금 10만원
문의 : 한성대학교신문사 (중문 앞 학생별관 우체국 건물 2층)
02) 760-4186
kmh77@hansung.ac.kr





매학기 반복되는 '사물함 전쟁'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 문제도 지적돼

사물함이 부족한 수량과 효율적이지 못한 공간 활용으로 인해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학생 수에 비해 사물함의 개수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총학생회가 관리하는 우촌관과 창의관에는 750개 가량의 사물함이 있고, 이외에 단과대와 각 과별로 운영하는 사물함이 있다. 이 중 예술대의 일부 과처럼 빈 사물함이 남아 있는 곳도 있고, 2-3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사물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학교에서 사물함을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총학생회가 운영하는 사물함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으면 총학생회에서 추천으로 사물함을 배

분하지만 매학기 약 1천명의 학생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결국 사물함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신진용(부동산 1)학생은 "학회실의 사물함 수가 한정되어 있어 학교에서 선착순으로 사물함을 배분했다. 하지만 배분 받지 못한 학생은 아는 사람끼리 나누어 쓰거나 총학 사물함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인문대 정책국장 전미소(한국어문 3)학생은 "전체 인문대생은 1,200~1,300명 정도 되지만 인문대 사물함은 120개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1인 1사물함이 기준이지만 사물함이 부족해 4명이 한 사물함을 쓰는 경우도 있다"며 사물함 부족에 대해 언급했다.

반면 빈 사물함이 남아 있는 과도 있다. 한 예대 학생은 "과내에 빈 사물

함이 10여개 정도 남아 있는데, 예대 특성상 개인 물건이 많아 사용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3개씩 쓰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사물함의 비효율적인 배치도 학생들이 총본한 사물함을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배정된 사물함이 수업을 듣는 곳과 멀어 사물함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다. 황의영(무역 4)학생은 "총학생회가 운영하는 창의관 1층 사물함은 많이 남는다. 이는 공학관, 탐구관 등 다른 건물에서 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창의관 1층의 사물함을 배정받을 경우, 오고 가기 불편해 배정을 받아도 사물함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사물함 부족이 심한 사회과학대는 사물함 확충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박시행(경영 3)사과대 학생회장은 "진리관 계단 사이에 사물함을 설치해 250명분의 사물함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호철(경영 4)총학생회장은 "신청할 때 자신이 수업을 듣는 건물과 가까운 건물을 지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특정 사물함에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현재는 무작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주인이 있지만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사물함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총학생회는 1차 추첨 기간 내 배부 받지 않은 사물함 79개를 대상으로 2차 추첨 결과가 발표되었다. 키 배부 기간은 13일~16일까지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동아리 평가과정의 이면

활동내역에 대한 사실확인 파악 없어

동아리들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는 동아리 평가가 일부 동아리들에 의해 그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

이는 지난 달 활동 내역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RCY동아리의 문제를 통해 처음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재 동아리 평가는 활동내역에 대해 사실 확인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정동아리 평가는 활동계획서, 전(前)학기 실적보고서 등의 서류를 통해 이뤄진다. 이 때 다양한 활동을 따른 사진 자료 등을 증빙 자료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동아리에선 이러한 증빙 자료를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으로 제출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동아리 평가는 정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농구동아리 이송희(의예 2)학생은 "대부분의 동아리 부원들은 정확한 활동을 기재하고 있지만 최종 위임이 있는 일부 동아리에서 이미 탈퇴한 부원을 명단에 올리거나 활동 현황을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추후 예방 차원에서 여러 동아리 평가 방법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윤동규(학생지원팀)연구원은 "모든 단체에서 활동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파악이 쉽지 않다. 소규모로 이루어진 활동일 때는 더욱 그렇다"며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

로 하는 선에서 학생들에게 서약서를 받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평가위원들은 교수로 구성된 동아리평가위원, 동아리연합회 임원, 학생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실적 보고서 등을 통해 행사 및 활동 실적, 대외활동 및 교류, 생활수칙 준수 등을 고려해 A~D등급으로 동아리를 평가한다. D등급이 2회 누적되면 동아리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학기에 등록이 취소된 동아리는 HSB(보디빌딩 동아리), 산악부, 예성합창단이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우리학교 방송국, 스피커 확충 필요

방송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스피커

학교 내에서 교내방송이 들리는 스피커가 하나뿐이지만 방송국에서는 이에 대해 미흡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성대학교 방송국(HBS)은 매일 8시 40분, 12시 10분, 5시 20분 하루 세 번씩 방송을 출력하고 있지만, 방송이 나오는 곳은 창의관 앞 스피커 하나가 전부다. 게다가 이 스피커마저 실외에 설치된 지 십여년이 지나 비바람에 많이 낙후된 상태다. 한 학생은 "학생식당 근처에서 몇 번 들렸을 뿐 다른 곳에서 방송을 들이려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낙산 등에 스피커를 설치하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각 건물 및 낙산 등에 설치되어 있던 상당수의 스피커 연결선은 1996~1997년의 가공선로 공사 때 끊어졌다. 이후 교내 곳곳에는 낡은 스피커와 출력장치가 방치되어 있다. 신영석(시설지원팀)팀장은 "공중의 전깃줄들이 미관상 좋지 못하다 해서 땅으로 묻었는데 그 때 스피커 선이 미처 연결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방송국에서 예산을 책정해 새로 스피커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엠

프를 사용하면서 스피커만 바꾸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을 것이고 요즘 스피커는 각 기기마다 볼륨조절도 가능해 자유롭게 켜고 끌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전현수(경제 3)HBS실무직원은 "예전에는 연구동, 우촌관 등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수업과 연구에 방해가 된다는 불만 등으로 스피커 선이 하나둘씩 끊어졌다. 방송, 행사 준비로 바쁘다보니 스피커 복구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학생복지위원회 '금연 캠페인' 펼쳐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에서 주최하는 금연 캠페인이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실시된다. 박재원(컴공 4) 학복위원장은 "교내 금연구역에서 학생들이 흡연을 하여 비흡연 학생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가고 있어 캠페인을 계속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연캠페인에서는 교내 흡연을 줄이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미래

관 앞에서 흡연경고 포스터가 전시되고, 담배절단식과 서약서 작성 등을 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금연 패치와 은단을 나누어준다. 박재원 학복위원장은 "금연에 실패해도 꾸준히 금연캠페인에 동참해 학생들이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동규 기자 donggyu@hansung.ac.kr

대의원 학교, 5월 1일~2일 열려

오는 5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충남 단양에서 대의원 학교가 열린다.

대의원 학교는 모든 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의원으로서 알아 할 것들을 배우고, 서로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대의원 학교에서는 회칙안에 대한 논의와 예산 인준, 감사 세칙 등 대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교육이 이루어진다.

심세용(산공 4)총대의장은 "이번 대의원 학교는 학생회에 비해 교류가 적은 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대의원으로서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 "올해는 작년보다 14명이 더 참가해 90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보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민혁 기자 dajai@hans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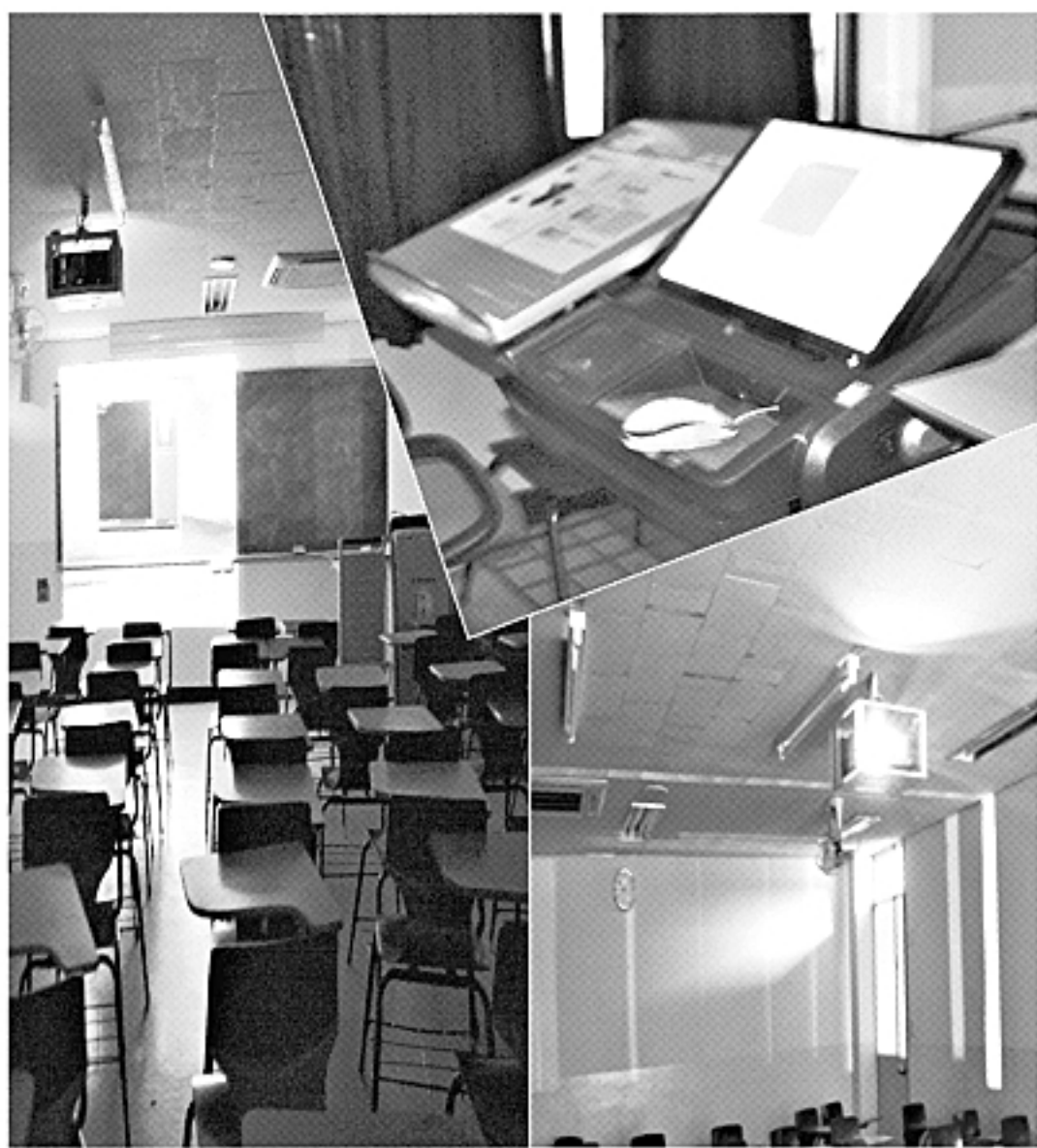
건강관리실·CCC, '절주 캠페인' 열려

지난 31일, 미래관 앞에서 건강관리실과 CCC(기독교동아리)가 연합해 주최한 절주캠페인이 열렸다.

김종민(기계 4) CCC회장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음주 문화에 대해 일깨워주고, 주량에 맞게 술을 즐기는 절주 음주 문화를 만들기 위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절주캠페인에서는 잘못된 음주상식 OX퀴즈, 절주서약서 작성, 무알콜 칵테일 시음, 음주고급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절주캠페인은 다음달 5월에 대동제에서 다시 한 번 실시된다.

김영호 기자 755914@hansung.ac.kr



수업이 끝나면 볼 좀 꺼주세요. 지난 11일 오후, 모든 수업이 끝난 탐구관 강의실의 모습이다. 전자교탁을 비롯해 컴퓨터 모니터, 스크린, 프로젝터가 환하게 켜져 있다. 불과 몇 분전까지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만 전자기기를 끄고 나온 학생은 없었다. 이렇게 전기가 낭비되는 강의실은 이곳만이 아니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4월 11~13일,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평가단 방문

우리학교가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공인원)로부터 공학교육인증제도(이하 공학인증)를 평가받는다. 우리학교 공과대학 6개 학과에서 지난 3년간 준비해온 공학인증 현장평가이 이번 달에 실시되는 것이다.

정병용(산업경영공학) 공과대학장은 "이번 평가에서 우리학교의

공학인증이 공인원으로부터 인증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예비인증 통해 공인원이 요구하는 공학인증 절차를 잘 수행했는지 등을 평가받으며 앞으로 정규인증에 필요한 부분을 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학인증은 공인원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공학도에게 졸업

시 공학교육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학인증을 신청한 학생들은 공인원에서 요구하는 기초교양(수학, 과학, 컴퓨터)과 프로젝트 위주의 설계 과목 등을 배워왔고, 학교에서는 공학인증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 등을 작성해 왔다.

박형신 기자 phsiltan@hansung.ac.kr



▲ 현재 유일하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창의관 앞 스피커

보직인사 발령

지난 4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보직교원 임명이 이루어졌다.

- ▲ 기획협력처장 이창원(행정학과) 교수 ▲ 총무처장 박명환(산업경영공학)교수 ▲ 사회과학대학장 유병호(무역학과)교수 ▲ 부동산대학원장 민태욱(부동산학과)교수
- 보직교원 임기 일자는 2012년 1월 31일 까지이다.

김영하 기자 kmh77@hansung.ac.kr

동정란

이기항(이류패션산업 전공)교수 이 교수는 지난 달 23~26일 몽골 울란바타르 패션 대학 Fashion Design Institute의 통갈락 학과와 KOREA WEEK에 몽골 측 패션예술가 및 모델 에이전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논의했다. KOREA WEEK는 한·몽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양국 공동 패션 아트전 및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패션문화협회 회장으로서 활동 중이다.

신재홍(교육대학원)교수 신 교수는 도서출판 학지사에서 『교육실습이론과 실제』라는 도서를 지난 달 3일 출간했다. 이 도서는 학교 현장실습 교재로서 교직과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실습생들이 알아야 할 현장 교육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학기 중간고사

모두 최선을 다한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한성대신문사가 응원하겠습니다.



2010년 향방기본훈련 참석 안내

1. 일시 : 2010년 4월 12일 (월) ~ 14(수), 09:00~18:00(8H)
 - *훈련 일자 : 한성공기 첨부파일 참조(성명순 및 군번으로 확인)
 2. 장소 : 덕릉예비군훈련장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당고개 소재)
 3. 훈련대상 : 한성대학교(원) 직장예비군 중 1 ~ 6년차 전원
 4. 행사사항
 - 신분증 필히 자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복장 : 규정된 예비군복장 착용
 - 09:00까지 입소, 지각할시(09:30이전 입소자) 추가교육 1시간
 - 09:30 이후 도착 시 입소불가하며 무단불참 시 고발조치 됨
 - 문의전화 : 02-760-4176(한성대 예비군대대)
 - 010-5075-6553(예비군대대 : 우촌관 208호) / 02-934-8764~5(덕릉예비군훈련장)
 5. 기타
 - 대중교통 이용 시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건너편"에서 33번, 33-1번, 10-5 번 시내버스 승차 당고개 덕릉예비군 훈련장 입소 또는 "전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건너편"에서 학교 예비군 수송용 용역 버스 이용 덕릉예비군훈련장 입소. 단, 학교에서 출발 희망자는 예비군수송용 용역버스 1대가 창의관 앞에서 당일 07:30에 출발하니 이용바람. 시간 미 준수시 승차 불가 함.
 - 자가 차량 이용 시 : 삼선교 → 미아리교역 → 드림랜드 → 당고개역 → 덕릉예비군훈련장
 -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예비군대대(우촌관 208호)로 방문하여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 지참하여 훈련에 참가할 것
- ※ 단 전입신고를 미 실시한 대학교(원)예비군대원은 한성대학교 예비군대대에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람. 전입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 지지 않음.

대학생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르바이트'

“재학생은 등록금 충당을 위해, 졸업생은 등록금을 갚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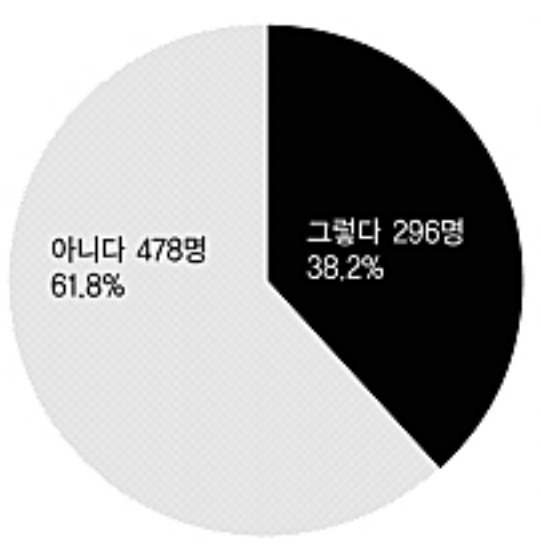
대학교를 다니며 공부에 열중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외도를 하고 있다. 대학생 10명 중 4명이 대학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고 대학 등록금을 위한 아르바이트 활동에 열중해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하는 아르바이트 중에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다.

지난 2월 24일 취업정보사이트 인크루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인크루트에서 3년 동안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이력서를 29만 여건을 조사한 결과 4년제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4년제 대학(재학, 졸업, 중퇴 포함)의 경우 2007년 29.7%, 2008년 35.2%, 2009년 39.2%로 각각 5.5%p, 4%p의 증가세를 보였다.

인크루트의 윤성은(홍보팀) 팀원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충당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취업을 못한 대학 졸업생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면서 고학력 아르바이트 지원자가 늘어난 것이다”며 “소득 보충을 위해 직장인들마저 투잡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고학력자의 아르바이트 시장 진입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인크루트에서는 지난 2월 19일 4년제 대학을 다니는 774명에게 “현재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까?”란 문항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전체 774명의 대학생 중 296명(38.2%)명이 등록금 충당을 위한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296명 중 아르바이트비를 50%

현재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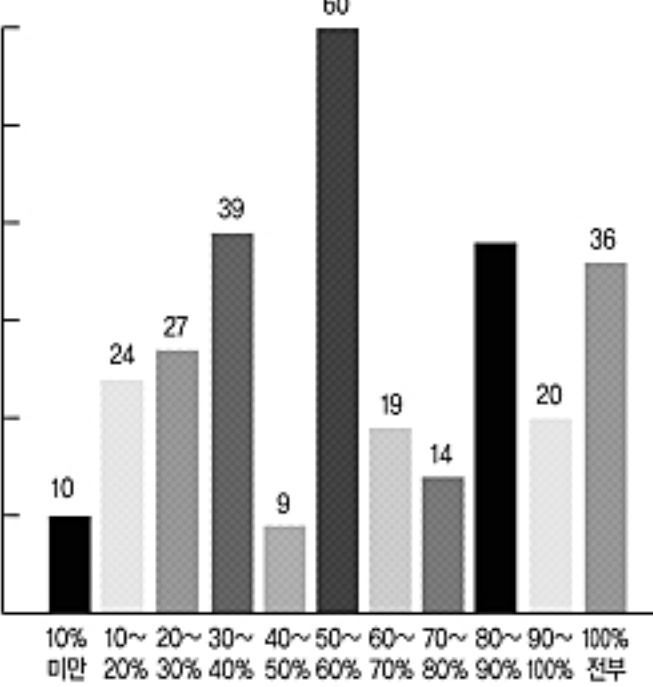


▲ 지난 2월 19일 인크루트에서 실시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동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상 등록금에 보태는 이는 63.2%로 나타나,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높은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며 대학등록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유한대학 2학년 박경환씨는 “지난 방학 중에 이어폰 조립 공장에 다녔다. 그곳에서 10분씩 2~3번 쉬며 8시간씩 일했다”며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단순 노동이다보니 정신적으로 피곤해졌다. 또 육체적으로도 반복된 일을 위해 계속 앉아 근무하자 허리가 아파와서 공장아르바이트를 오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몇 %를 등록금에 보태고 있습니까? (한 달 기준, 총원 '그렇다' 296명)



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전공과는 상관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또 이런 아르바이트 활동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더 있다. 박경환씨의 경우 시간당 임금 4,000원으로 지난 방학 때겨우 최저임금에 턱걸이한 급여를 받으며 일했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은 곳에 일해 노동력의 착취당하기 때문이다.

서울종합예술학교 1학년 안윤호씨는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본 적이 있었다. 그 때 때마침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있어 전화했었다.”며 “처음 전화했을 때는 시급

을 말해주지 않아 직접 찾아가 면접을 보고 시급을 물어봤다. 그런데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인데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윤호씨처럼 저임금의 아르바이트를 거절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학생들은 저임금이 라고 일단 하고 보는 이들도 많다. 또 임금만 높게 준다면 어떤 아르바이트든 상관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우리학교의 한 학생은 “짧은 기간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생활학적 동등성시험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회사에서 준 약을 먹고 그 약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었는데, 위험하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하게 됐다”며 “생동성 아르바이트를 통해 2주 동안 6번 시험 장소로 나가 48만원을 받았다”고 아르바이트 경험을 떠올렸다.

이창원(행정학과) 교수는 “학기가 끝나고 방학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3개월 정도의 아르바이트 활동으로는 등록금을 충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학생의 경우 3개월 가량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면 한 학기 등록금을 벌 수 있다. 또 대학 자체에서도 근로학생으로 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다”며 “학생이 서빙 등과 같은 아르바이트에 들어가는 시간동안 대학의 근로학생을 늘려 일자리를 주는 방안으로 이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백성민 기자 phstilan@hansung.ac.kr

In the field

“알바비 4,000원, 등록금 400만원! 등록금을 낼 수 없다”



▲ 지난 4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학생 교육공동행동' 집회가 열려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지난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울지역교 육대책위,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전국학생행진, 한국대학생연합 등 총 7개 대학생 단체가 '기민적인 취업 후 상환제 개정, 반값등록금 이행 촉구 대학생 교육공동행동'의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취업 후 상환제는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아래 등록금이 인상되면 이 고통을 미래로 유예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정권의 내세운 반값등록금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참가한 안하태 이지현씨는 “취업 후 상환제는 B학점 이상을 받아야 대출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할 수 밖에 없어 학점을 잘 받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불공평한 제도라”며 취업 후 상환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경희대 유승현씨는 “교내에서 취업

후 상환제 반대 서명운동 결과 5,300명 이상이 서명했다”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의 요구안을 보며 “알바비 4,000원, 등록금 400만원, 상위 1%만 특별해지는 세상, 등록금을 낼 수 없다”라며 즉석 랩으로 비판하는 아티스트를 포함해 학생들의 바람을 담은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서울대 김세영씨는 “등록금과 취업 후 상환제는 대학생의 삶에 지명적이다. 얼마 전 교내의 강연에서 강연자가 ‘순수학문보다 상업에 목적을 둔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취업에 더 도움이 되지 않냐’는 발언을 해 많은 반발이 있었다”며 대학이 시정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사회문제로 통하다

고립적 개인주의에서 공존의 집단지성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브랜드를 꼽는다면, 커피브랜드 '스타벅스'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스타벅스는 단순히 맛있는 커피를 판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취향의 문화를 파는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현대사회에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측함으로써 과거 커피전문점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에서 현대의 개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가까이 갈만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 개인들은 어떤 주제들일까? 그들은 대중이 지배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이며, 동시에 익명성이 강조되는 대도시에서 타인과의 차이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내면화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소비사회와 대중문화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은 그들은 현대 문명의 수혜자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테크놀로지를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세대이다.

이처럼 오늘날 '개인'은 대중이라는 덩어

리의 한 부분으로서 스스로 특이성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이 '개인주의'의 이름으로 나타날 때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의 대학사회는 눈여겨볼 만하다. 피상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개인 주제들로 가득하겠지만, 그 속내를 보자면 그들은 개인주의의 이름으로 서글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성과 차이를 강조하는 듯하지만, '스펙'(specification)의 이름으로 비슷한 부류만 양산되고 있지 않은가. 대학사회에서 만나는 개인들은 무한 경쟁이라는 틀을 통해 서로 철저히 배려된 주체들이다. 그들에게 타자란 배려하고 손잡는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인 동시에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정복의 대상이자 착취의 대상일 뿐이다. 2010년 한국의 대학생들은 고독하고 쓸쓸하다.

개인의 탄생은 곧 근대사회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였다. 수많은 개인들의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으로 인해 인류는 진보할 수 있었으며 학문과 예술, 문화는 더 깊은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물론 개인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엘리트주의, 혹은 파시즘의 형

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한국처럼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회에서는 개인은 항상 억압당하는 존재였지만, 지난 20년 동안의 문화변동은 개인의 위상을 한껏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 빠른 속도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가지 예로, 1인 가구의 비율이 2009년 전체 가구수 대비 20%를 넘어섰다. 이는 가족의 해체를 넘어 소통불가능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저출산 문화도 문제겠지만 그 가운데 자리 잡은 심각한 경쟁의 문화는 앞으로 한국사회의 미래가 어둡힐지 두렵기만 하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정체성으로 무장한 새로운 세대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개인주의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개인은 집단이라는 공동체와 대립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성'으로 존재한다. 개별성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언제든지 상호 '합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개인은 고립되고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 개인은 수많은 다양한 개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어울릴 수 있는 독립적 지성이 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은 이미 형성되고 있다.

당장 우리 눈에 띄는 것만 하더라도 '위키피디아'나 '트위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속에서 개인은 더 이상 힘 없는 소수로 남아 있지 않는다. 그들은 개인의 무한 접속을 통해 상상 이상의 힘과 권력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과 개인은 더 이상 위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내용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으로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개인주의라는 고립되고 분리되고 경쟁하는 부정적 입장을 벗어나, 협력하고 소통하고 공존하는 입장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

권경우 문화평론가

낙산만평

류연수(애니제움 2)



미국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1+1(ESL+Semester) Program 파견학생 선발

1. 프로그램 개요

- (1) 1+1(ESL+Semester)program의 구성
 - 학기 1 : NKU Intensive English Program 16주과정 참가
 - 학기 2 : NKU 정규 학부과정 수강
- (2) 파견기간 : 2010년 8월 ~ 2011년 5월
- (3) 파견인원 : 최대 10명 (지원자의 여학수준 고려)

2. 지원자격

- (1) 파견시점 기준 본교에서 두 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 (편입생은 한 학기 이상 수료자)
 - 귀국 후 한 학기 이상 전역학기 이수 가능한 자
- (2)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3)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4) 학점 : 2.5 이상
- (5) 어학성적
 - IBT 50점이상, IELTS 4.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보유 한 자
 - 혹은 위 성적에 해당하는 어학능력을 보유 한 자 (어학성적 없이 지원가능)

3. 학점인정 내용

- (1) 1학기 (Intensive English Program)

- 본교인정과정 : 일반선택

- 취득학점 : 최대 18학점, 취득한 공인 TOEFL 및 IELTS 성적에 따라 인정 학점범위가 달라짐

	0학점	3학점	6학점	9학점	12학점	15학점	18학점
IBT	0~23	24~34	35~44	45~52	53~69	70~89	90~120
IELTS	0~2.5	3.0	3.5	4.0	4.5~5.0	5.5~6.5	7.0~9.0

(2) 2학기 (Regular Semester)

- 본교인정과정 : 전공, 일반선택
- 과목결정 : 본인의 어학수준에 따라 학부과목/영어과목의 비중이 정해짐, 수강한 과목의 전공 과목 인정 여부는 본교의 소속 학과장님이 결정
- 취득학점 : 최대 18학점

4. 비용

- (1) 본인부담 : 상대교 수업료 약 80% (\$4,000/학기), 본교 수업료의 50% (역수는 전공에 따라 다름)
 - 기숙사비, 교재비, 건강보험료 기타 생활비 등 본인부담
- (2) 본교지원 : 왕복항공료, 본교 수업료 50%는 국제교류청학금으로 지원

5. 지원서류

- 지원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및 출력 제출)
- 컬러사진 1매 (지원신청서 부착)

-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국/영문으로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및 출력 제출)

- 교수 추천서 (첨부양식)
- 보호자 동의서 (첨부양식)
- 학부 성적증명서 (종합정보시스템 누락성적 출력하시고 증명서 발급기 사용하지 마세요)
- 최근 2년내 취득한 공인 TOEFL, IELTS 혹은 TOEIC 성적표 (소지자만 해당)
- 서약서 (첨부양식)

6. 선발기준

- 학점(30%) + 필기영어고사(30%) + 영어면접(30%) + 국영문자기소개서(10%)
 - (어학성적 IBT 45, IELTS 4.0 TOEIC 650점 이상의 성적인 어학성적 가진자 반영)

7. 선발일정

- 서류 접수 : 2010년 4월 12일(월) ~ 4월 14일(수)
- 필기 고사 : 2010년 4월 15일(목) 점심 및 시간 서류접수시 통보
- 면접 고사 : 2010년 4월 15일(목) 점심 및 시간 서류접수시 통보
- 합격자 발표 : 2010년 4월 21일(수) 이후

8.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우촌관 3층 종합행정실 국제교류팀 (760-4266, 담당자: 김일환)

사설

학기의 반화점을 준비하는 자세

벌써 4월 중순으로 들어가고 있다. 다음 주는 중간고사 주간이다. 어느덧 학기의 중간 어림에 와 있다.

마라톤으로 치자면 반화점에 가까워진 경우다. 마라톤의 경우 반화점 이후는 우리의 체력이 매우 떨어지고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는 힘든 시간들이다. 하지만 여태껏 달려온 노력은 반화점 이후의 성취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마라토너의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이제 중간고사를 맞이하는 우리도 마라톤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이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은 새로운 배움과 압박감에 수습입정, 그리고 과제를 잘 소화해 왔다. 곧 있을 중간고사는 그간의 배움을 되돌아보고 잠시 숨을 다들 시간이다. 중간고사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가는 우리의 성취에 매우 중요하다. 이 시간들은 그간 배운 것을 토대로 더 진보되고 새로운 영역으로의 비상이 가능한 시간들이다. 지치고 힘들겠지만 매일 매일의 시간들이 미래의 나를 위한 루트의 시간이 되어야겠다.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에 의해 만들어진다"라고 하였다. 꾸준한 노력을 강조하는 말이다.

중간고사 이후에 있을 각종 축제, 행사, 그리고 봄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게으름 등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우리 주변이 주는 즐거움에 안주해 있을 때 시간은 통나무가 언덕을 굴러 내려가듯 빠르게 흘러가 버린다.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했던 에드먼드 힐러리는 "내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내 안에서 나타내 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안주하고 게으러지려는 모습이 나타나면 자신을 정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일 보도되는 나라 안팎의 사건들로 인해 마음이 울적년스럽다. 이럴 때 일수록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이다. 우리도 생동하는 자연과 함께 푸른 창공을 향해 힘찬 날개짓을 해보자.

예의가 사라진 대학생

중간고사가 임박할 앞으로 성급하게 되었다.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기간이 되면 주말에도 도서관에 나가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도서관에서 학생들의 예의없는 모습들은 보면 우리가 과연 대학생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도서관에서 남들 시선 아랑곳 하지 않고 전화를 받는 모습, 친구 자리를 맡아준다고 여러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뻔뻔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타인에 대한 배려 없는 모습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교내 곳곳에서도 볼 수 있다.

강의가 진행 중이든 말든 복도에서 큰 소리로 수다를 떨거나, 소리를 지르는 학생, 쓰레기를 강의실 책상에 그대로 두고 가는 학생, 금연 구역에도 버려진 담배꽂초,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낙서하고 반납하는 등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다. 대학생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단계의 준사회인이라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자로 밖에 안 보인다.

미국이 금융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월가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심각하

서도 중요한 문제로 지목됨에 따라 최근에 기업에서는 인재를 채용할 때 탁월한 업무 능력, 외국어 실력 등의 스펙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품성도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자기 중심적인 'Me 세대'가 아닌 공동체를 중시하는 'We 세대'의 가치가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자인 실비아 홀렛은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를 통해 "공동체와 조화를 먼저 생각하는 'We 세대'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여야 한다는 'Me 세대'에 대비되는 개념"이라며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We 세대'가 'Me 세대'를 대체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결과를 한번 더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배려 없는 행동은 어느새 사라져 있을 것이다.

앞으로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로 매너있는 한성인이 되길 바란다.



화정

종이, 종이책, 전자책

김창룡 교수 (한국어문학부)



종이책 일단 권을 담아놓을 뿐 아니라 메모, 줄긋기, 검색 기능마저도 지양하는 전자책의 유혹은 나날이 높아만 간다. 이제 진정 인류의 기록 방식은 과연 그 매체를 달리할 것인가? 때 맞춰 종이의 기원설도 근자에 흔들리고 있다. 곧 종이는 채론보다 200~300년 이전에 존재했고, 그리하여 후한의 채론이 종이의 발명자가 아니라 개량자라는 설이 갈수록 우세해 가는 듯한 분위기이다. 하지만, 최초의 채론 기준(A.D.106년)에서 헤라클레스도 종이의 역사는 무려 2000년을 내다보고 있다. 그렇게 종이와 탄생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책의 역할 소임을 다해왔던 대나무 책인 죽간은 어느 날 그 자리를 종이책에게 내주고야 말았다.

그 옛날 죽간책의 시대를 마감시킨 그 종이책이 바로 오늘 우리시대에 또다시 전자책(e-book)의 등장으로 인해 좌불안석, 그 위상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 갈림길 앞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종이책의 운명에 대해 예언하는가 하면, 다

음 같은 연민의 정을 표하기도 한다. '우스갯소리로 도구로서 책의 유용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적었다. 하숙생 시절 친구 여럿이 둘러앉아 책 위에 올려놓고 후후 불며 먹은 음식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월급쟁이들은 비자금을 은닉처, 숨은 지갑으로 책을 애용했다고 말했다. 무심코 옛 책을 뒤적거리다 만 원짜리 몇 장이 흠뻑 젖었을 때의 행복감을 잊을 수 없더라는 얘기도. 봄, 가을엔 꽃잎과 낙엽을 책갈피에 끼얹어 그 해의 내 마음을 감춰놓았다는 사람, 현재 방 책에서 옛 친구 이름을 발견하고 상념에 젖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2008년 11월 8일자 다산포럼 - 민병욱의 <종이책은 죽지 않는다>에서)

다만 종이책의 운명과 종이의 운명이 같은 상황을 겪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종이책'은 보다 상위적 개념인 '종이' 존재의 일부에 불과한 까닭이다. 종이가 인류 문화에 끼치는 그 광범위한 영향은 하필 종이책 한 가지에만 국한하지 않

았다는 뜻이다. 3년째 <목가>라는 서예 월간지에 '문방열전'이라는 큰 제목 하에 문방사우 및 연적 등을 주인공으로 삼은 의인 열전들에 대해 연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붓, 먹, 베풀, 연적들은 하나같이 서화의 쓰임새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이지만, 종이는 그러한 용도를 훨씬 초월하여 있음을 실감케 된다.

종이를 사람인양 의인화한 이침의 <저생전>이거나, 중국 명·청 시대의 종이 의인작인 <저대제전>, <저생생전> 등에서 종이의 용도는 하필 책 한 가지에 한정되지 않았다. 이월테면 역대 명필의 글씨를 담은 화선지, 불망기(不妄記), 시를 적어 담은 쪽지(詩箋), 관리나 장사꾼의 회계 장부, 밀서, 우산과 양산, 문종지, 부채, 화선지, 가리개, 정치 외교 문서 등등, 그 쓰임새와 구실은 인간의 삶 속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많기만 하다. 그리고 그 용도는 시대를 따라 변신을 거듭해 왔다.

그러하여 어떤 미래에 혹 종이책이 전자책에 밀려나는 기막힌 일을 당하는 상상을 한 번은 해 본다. 보다 극단적으로는 우리 생활 깊숙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던 모든 종이들이 서서히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는 일도 한 차례 각오해 본다. 그런데 그 그림은 영 낯선, 차가운 꿈만 같아 보인다. 과연 디지털 급속의 전자 제품들이 오랜 세월 종이들이 우리 인류에게 선사한 따스한 휴머니티의 체온마저 고스란히 전해 줄 수 있을까.

이러한 다양함 말고도 종이는 인류에게

한 줄 맺 글

'시험기간에 지켜주었으면 하는 에티켓은?'

이제 곧 중간고사 시험이 시작된다. 시험기간에 도서관에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주었으면 하는 에티켓이 있는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최준혁(멀티 3)

도서관에서는 발을 잘 씻은 후 슬리퍼를 신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에 안됩니다.

이준형(행정 4)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자리 맡아두지 않기.

이준호(의과 3)

커피끼리 앉아서 장난치면서 히히덕거리기 금지.

정은영(기계 4)

어려운 개념 탐해.

문상욱(경영 2)

아침에 사람 많을 때 학생증 3장 들고와서 친구 자리 맡아주는 것.

김홍기(컴공 3)

그 자리에 전에 앉았던 사람물건이 있고, 그 사람은 없고 난 기다릴 뿐이고.

김민정(한국어문 4)

자리이용 시간 중간에 나갈때 자리반납해주기

김유석(경제 4)

가장 기본적으로 따지지 좀 말기. 뭘 말들이 많은지, 밖에서 하던 것들.

정지현(멀티 3)

과감하게 학습정보관에서 얼마만큼 통화하지 않기.

김지현(멀티 4)

열람실에서 친구랑 옆자리 앉아서 토의하지 않았으면!

이가람(경제 4)

쓰레기버리고 나가기! 자리 겨우맡고 찾아가면 책상에 수북한 지우개가루 종이컵 기타 등등.

정지은(경영 3)

흔들떨하며 외우지 않기로! 옆에 있는 저까지 외우게 하오!

이정아(의과 3)

큰소리로 mp3듣지말기! 이어폰 바깥으로 나온 노래가 사까지 듣고싶진 않아요.

한유정(매디 2)

문나가면서 떠들거나 문 밖에서도 너무시끄럽게 히히덕거리지 않기 안에서 다들리고 짜증남.

김나건(행정 3)

자는 건 좋는데 도서관에서 코골지 말기. 깨우기도 참 난감.

'한줄맺' 관련 게시물은 '낙산의 메아리'에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학우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작성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 수령시 연락할 수 있도록 댓글 뒤에 학과 및 학년을 꼭 기재해 주세요.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37호 당첨자는 정은영(기계 4)학생입니다.

독자투고

교내 미관 해치는 불법 홍보물 없애주세요!

정인규 (무역 4)

학교 건물을 지나가다 보면 어김없이 눈에 띄는 불법 포스터들을 수도 없이 접합니다. 편입학원, 공무원 강의 홍보 포스터 등은 이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포스터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정서 허가 없이 부착되는 불법 포스터들은 비단 요즘의 일이 아닌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불법 편입 포스터의 경우 수도 없이 붙어 있어 낙산의 메아리에 이에 대한 불만의 글로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학외 건물에 정발로 홍보가 필요한 유익한 포스터들이 방해받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언제까지나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환경미화원을 하시는 아주머니들께서 그 붙어 있는 것을 보실 때마다 제거하고 계시지만 곧바로 또 다시 붙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후적인 조치는 아주머니들의 일거리만 늘어나게 할뿐 완전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 포스터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학생들의 눈이 편해지고 공식적인 홍보가 방해 받지 않을 것이며 아주머니들도 때를 수고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편입을 준비하는 소수의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외의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자부심을 잃게 합니다. 불법 포스터들이 주는 불편은 그뿐이 아닙니다. 그 커다란 불법 홍보물들은 공식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학교의 허가를 받은 동아리들이나 학생자치기구의 포스터를 무

Hansung Success Frontier 프로그램 시행 안내

1. 프로그램의 내용

• 특정 주제(전공, 부전공, 관심분야)와 관련된 선진 기관의 탐방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팀 구성원이 직접 방문할 국가 및 기관을 조사하여 탐방함.

2.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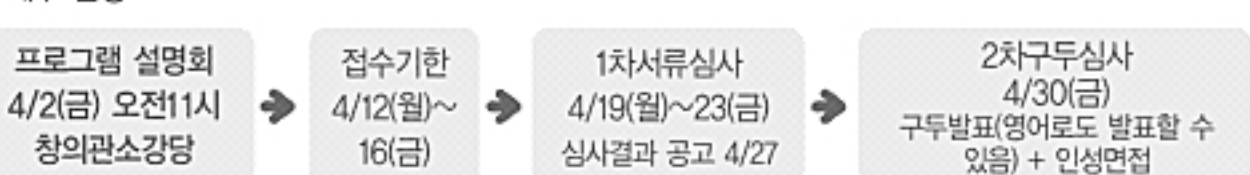
- (1) 참가자격 및 제한
- 학부 재학생(2010년 8월 졸업예정자 제외)으로 직전 학기 성적 평균 3.5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 제한 없음)
(2) 선발 팀 수 : 4팀 내외
(3) 팀 구성 : 팀당 3명
(4) 탐방기간 : 하계 방학 기간 중 10월 ~ 14일 이내
(5) 탐방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 4. 12(월) ~ 4. 16(금) 오후 17시까지
- 접수장소 : 학생지원팀(청의관 1층)
(6) 제출서류
① 탐방 계획서 7부(파일 첨부)
② 탐방 계획 요약서 7부(파일 첨부)
③ 팀원 성적증명서 각 1부

3. 탐방 계획서 내용

- (1) 탐방주제
- 탐방주제는 전공/부전공(혹은 관심 주제) 관련 내용으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주제를 선정하며, 탐방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 주제의 필요성, 참신성 등이 기술되어야 함.
(2) 탐구성원
- 3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학과, 단대별 구성 제한 없음.
(3) 탐방국가 및 기관 / 인터뷰 담당자

- 탐방기관은 해당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기관으로, 관련분야의 국제기구, 대학, 해외 유수의 기업 등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방문계획에 이를 명시해야 함. (예) 세계무역기구, UNESCO, Microsoft, 애플사 등
- 탐방이 구체화된 경우(탐방기관의 대상자와 구체적인 문서를 주고 받아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를 반드시 기술함.
(4) 탐방일정
- 본 프로그램은 교육 탐방으로, 관광형 여행중심의 탐방 계획서를 금지함.
(5) 소요예산(실제 소요되는 경비(최소경비로 편성)를 산출)
(6) 출발 이전까지 팀원과의 사전모임을 통해 연구 자료를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계획을 명시해야 함
- 탐방팀 사전교육 일정
- 방문국 및 기관의 사전조사
* 작성요령 : 휴면명조 10, 행간 160으로 작성하되, 20매 이내로 제한함(여백 좌우 상하 20)

4. 세부 일정



5. 심사 방법

- (1) 선발 방법
□ 1차 서류심사 100점
• 탐방계획서, 탐방계획서 요약서를 바탕으로 심사함.
• 서류심사 기준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120%에 해당하는 팀을 1차 선발함. [서류심사항목] 학업성적 + 탐방계획서
□ 12차 구두면접 50점
• 서류심사 결과 선발된 팀에 한하여 구두발표심사를 실시함(영어로도 발표가능)

-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함. [면접심사항목] 언어능력 + 인성

6. 지원금액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 Hansung Success Frontier 육성 장학금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금액이 지급되며, 나머지는 학생자치비로 충당해야 함.

Table with 3 columns: 지원 한도 (최고액), 지역, 비고. Rows include 700,000원 (1인당) 아시아 (일본 등), 1,000,000원 (1인당) 중동 / 중앙아시아, 1,300,000원 (1인당) 미국 / 유럽

□ 지원금 지급방식

- 지원금의 90%는 출국 전 지급하고, 10%는 결과발표회 평가 후 지급(평가결과가 50점 이하인 경우 10% 지급이 제외될 수 있음).
- 탐방이 계획에 따라 적절하지 않게 사용된 경우 기 지원금을 모두 회수함.

7. 기타사항

- (1) 결과보고서 제출 : 귀국후 2주 이내 팀별로 결과보고서 제출하며, 이를 e-book 자료집으로 발간함.
-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사진 등 첨부파일은 제출해야 함.
(2) 결과발표회 개최 : 별도 지정하는 날에 결과보고 발표회 개최
*기타 문의,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이미화 차장, 760-422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지원처장

사람을 만나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 진학한 장지해 졸업생(지정 09졸)

삶의 지표가 명확한 유쾌한 낙천주의자



'세계와 인류의 평화를 꿈꾼다.' 미스 코리아 후보들이 카메라 앞에서 던지는...

향유하고 싶어 학부 2학년 때부터 대학원을 준비했다. 한 분야를 깊게 공부하고 그...

그가 후배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청강이다. 다른 대학의 강의를 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기자수첩

휠체어에서 느낀 학생들의 따뜻한 배려심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본 학교 건물은 장애물의 연속이었다. 우선 가파른 중문 앞...

애초에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학관 언덕에서 한참을...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대학원 인터뷰

대학원 석사원우회 행사총괄위원장 오진석 원우

“다양한 자격증으로 이용해, 사회체육과 사회복지에 힘 쓰고 싶다”



우리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오진석 원우는 체육전공이라는 다소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체육학부 재학시절 YMCA체육자원지도자 클럽에 입회하여 4년 동안 여러 가지 체육 관련 봉사를 하면서 졸업 후에는 YMCA에서 체육지도자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었다. 각종 청소년 사업과 학생들과의 교류 행사를 하다보니 사회체육과 사회복지의 연결선으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다”며 “한성대는 교육을 받기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다. 젊은 열기가 가득해 나까지 젊어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때 경력사항을 꼭 채용 선배의 이력서를 보고 자극을 받았다. 게다가 YMCA클럽에서 사회체육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를 생각하면서 노력 끝에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목표는 1년에 적어도 1개의 자격증은 취득하는 것이라”고 웃음지었다.

할 때 우리는 섬으로 대피해 다행히 사고는 없었다”며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Analogical인 것을 경험하게 해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현재 우리학교에서 맡고 있는 직책은 행사총괄위원장이자 이 점에 대해 “어찌보니 신입생 환영회부터 마이크를 잡게 되었다. 부족하지만 나로 인해 사람들이 즐겁고 편한 자리가 될 수 있다면 가장 기쁘다. 나를 믿고 기회를 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시절부터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던 그는 대학생들에게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적성과 잠재력이 숨어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찾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열심히 하는 것에 후회는 없다. 현재에 충실한다면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웃었다.

이예진 기자 edory11@hansung.ac.kr



학술관 지붕... 이걸 다 누가 버렸을까요?

지난 9일, 탐구관 발코니에서 휴먼자들이 버린 담배꽂이가 학술관 지붕위에 쌓여있다.

김동규 기자 donggyu@hansung.ac.kr



주간식단표

2010년 4월 12일(월요일) ~ 4월 16일(금요일)

Table with columns for date, department, and food items with prices. Includes items like '쌈밥/잡곡밥', '파인애플무유밥', '참치김치찌개', etc.

※ 식자재 공급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가로

- 1 우리학교 총장 이름은?
2 한성대학교 경도 동이리의 이름은?
3 2010년 월드컵이 열리는 곳
4 올해 의거 100주년이 되는 이토 히로부미

세로

- 1 조선 제22대 왕, 즉위와 동시에 봉공을 경희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긴 왕은?
2 최근 백령도에서 침몰한 초계함의 이름
3 남위 23° 26' 22" 에 해당하는 남중고도가 90도가 되어 천정을 통과하는 위선의 명칭은?
4 5월 1일, 메이데이라고 불리며 근로기준법상 휴일
5 높이는 632m, 북한산, 남한산 등과 함께 서울분지를 둘러싼 산중 하나. 산림동과 경기도 안양시·과천시와 경계에 있음
6 [명사] 남을 속여 넘김

정답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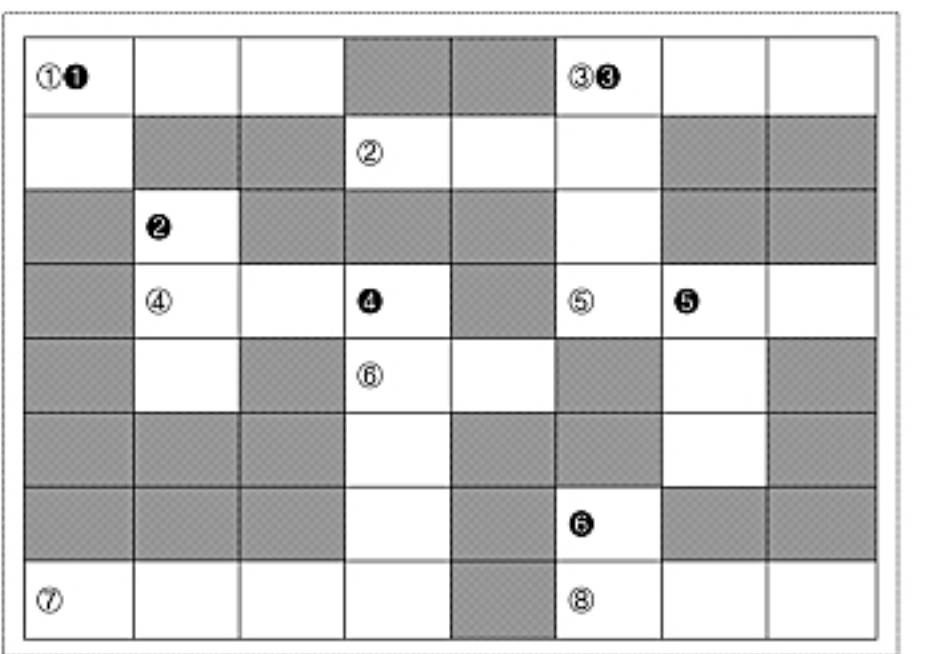
- 강원청(경명2) 010-XXXX-5422
김수지(지정3) 010-XXXX-5018
이준행(행정4) 010-XXXX-2452

정답자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자번호 정답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 한성대신문사(02-760-4186)

학과(학과)

이름:

연락처



살아 숨 쉬는 예술 '바디아트'

인간의 몸을 재구성해 신체의 아름다움을 표현

해외에서는 바디아트 페스티벌 문화의 발전과 함께 보편화되어 있다. 카니발과 같은 행사에 바디아트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바디아트는 생소한 예술 분야이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학교 예술대학원에서는 바디아트 페스티벌을 마르니에 공원과 학교에서 2차례 열며 바디아트를 대중화하려 하고 있다. 그럼 바디아트란 무엇일까?

바디아트는 신체장식, 신체미술, 행위예술 등의 분야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최희자비디오편역사학과 분장예술전공) 교수는 "신체장식은 신체에 안료(물체에 색을 입힐 수 있는 색소)를 칠하거나 머리를 묶어서 꾸미는 방법이다. 그리고 신체미술의 일시적인 형태에는 화장, 면도가 있고 영구적 형태로 문신 등이 있다."며 신체장식과 신체미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체미술은 신체를 표현의 매체나 주제물로서 한정하고 작품 자체의 완성보다는 만드는 과정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바디아트에 속한 행위예술의

표현을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술로 신체를 이용한다 해서 신체예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과정예술로 불리기도 한다. 예전에는 해프닝, 이벤트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퍼포먼스라는 용어로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최희자 교수는 "바디아트는 전위적 예술이다"라고 말한다. 작가는 바디아트를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감각, 혹은 의도를 퍼포먼스와 함께 보여 역동감을 지닌 다양한 유형의 작품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바디아트는 회화나 조각 예술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그는 "이들 분야는 단순한 평면예술이나 사물의 형상이 정지되어 있는 예술



인 반면, 바디아트는 인간의 몸을 재구성해 신체에 아름다운 것은 물론 일정한 세계관을 표출하고 동시에 심미적 감각까지도 만족시키는 '살아 숨 쉬는 예술'이다."고 바디아트에 대해 설명했다. 바디아트의 기법에는 회화적 기법, UV발광감을 이용한 표현기법, 에어브러시 기법, 그래픽적 표현기법, 프로젝트 입투미네이션 기법 등이 다양한 기법이 존재한다. 바디아트의 표현기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회화적 기법은 자연물을 주제로 묘사하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형상화 시켜 메시지 전달하는데 가장 용이하다. 또 UV발광감 기법은 신체에 색을 부여하고 블랙라이트 조명을 사용해 투

명체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법으로 무대공연에 많이 활용된다.

최희자 교수는 "바디페인팅을 활용한 광고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는 하나의 학문으로 꾸준한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우리에게 친숙한 신체에 행해지는 메이크업의 형태로 변화 될 것이며 예술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으로의 독자적인 한 장르로 인정될 것이다."며 바디아트의 미래를 전망했다.

박형신 기자 phsiltan@hansung.ac.kr



김인경 작가

도설연재

그곳에 그는 없었다. (3)



현수는 한동안 사내와 더 얘기를 나눈 후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서 서성거렸다. 리어커를 지키는 어머니의 갈라진 손끝이 멀리서도 뚜렷하게 보였다. 오늘도 장사가 실패한 모양이었다. 현수는 사내의 부탁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현수의 마음 속에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하지 않은가라는 결심을 해두었는지 모른다. 거기에서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누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누나는 벽에 머리를 찧고 한없이 울부짖었다.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다며 동네가 떠나가라고 악을 쓰며 온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방안 밖 여기 저기에는 그때의 혈흔 자국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집으로 향하던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걸을 때면, 그런 생각은 여지없이 현수의 발걸음을 더디게 했다.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깊은 모래 사막을 걷는 기분이었다. 빠지지 않으려고 힘을 주면 더욱 깊숙이 잡아당기는 어떤 힘. 아주 미세한 모래알들이 한데 뭉쳐서 거대한 기운으로 발목을 놓아주지 않는 그런 기분이었다. 골목 군데군데 놓여 있는 온갖 오물들의 실체와 그 속에서 쪼그라든 근원을 알 수 없는 지독한 악취를 언제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는 나무대문의 삐걱거림은 매번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항상 대문을 열어놔도 불안한 할 필요가 없는 이곳, 이 동네에는 해가 지면 사람들이 휴식을 찾아 들어오는 집이 있었다. 하지만 현수가 집으로 향하는 길은 휴식이 아닌, 더 깊은 사막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뿐이었다.

누나가 요양원에 가면..... 그 돈이면..... 현수는 사내가 테이블 위에 얹어 놓은 돈을 또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돈이면 누나는 요양원에 갈 수 있을 것이고, 현수나 어머니는 마음을 어느 정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현수는 움켜쥔 사내의 연락처를 풀어지게 쳐다봤다. 인젠 그 연락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하게 될 줄은 현수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박형진의 약혼녀를 만나는 날은 의외로 빨리 왔다. 사내는 망설임 없이 현수에게 박형진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제 동생은 정확한 걸 좋아하는 녀석이었어요. 말을 할 때도 항상 흐리는 법이 없었지요. 물론 오해를 산 적도 있지만, 늘 하는 일은 정확했어요. 그리고 약혼자 혜선 씨, 그녀의 이름은 윤혜선이예요. 윤혜선, 내일이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안전하고 조용한 아가씨죠. 동생과 내년 봄에는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사고를....., 휴..... 충격이 클 거예요. 그러나 기억을 못 하죠. 그 당시의 사고만으로도 동생이 살아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동생을 찾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더 이상의 충격은 무리라는데....."

사내는 여기에서 잠시 말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의 이마에는 오랫동안 쌓인 피로가 굵은 주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갑작스런 동생의 죽음은 사내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아픈 일이었다.

"혜선 씨를 만나면, 아마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제 동생은 말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얘기를 해도 서로에게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죠.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사내는 현수의 모습에서 동생에 대한 기억을 찾고 있었다. 사내의 시선에 현수조차도 자신이 혹 박형진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자신은 정현수, 정현수였다. 지금 돈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정현수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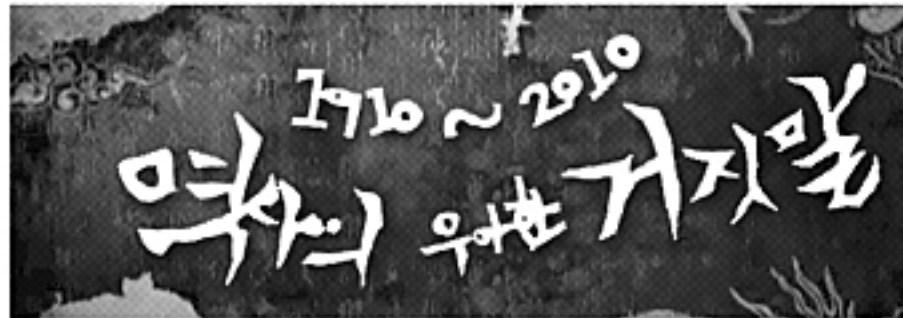
"저....., 그래서요?"

현수는 자신의 착각을 바로잡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크게 냈지만, 이제는 박형진의 역할을 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은 터였다. 수첩을 꺼내 사내의 말을 몇 가지 적는 성의를 보이기로 했다. 현수의 수첩은 이내 한 페이지가 채워졌다.

박형진, 서른 두 살, 백화점 인테리어 담당이었고, 딸이 그리 많은 사람이 아니다. 2남 1녀 중 막내다. 약혼자 윤혜선과는 삼 년 정도 만났고, 내년 봄에는 결혼을 하기로 했다. 그녀와 남산에서 드라이브를 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그녀, 윤혜선, 스물 여덟 살, 임상병리사인 그녀 또한 말이 많은 편은 아니다. 여성스러운 면이 많은 여자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녀는 지금 임원중이다. 정신적인 충격이 심한 상태다. 해리성 기억 상실증에 걸려 사고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 박형진의 죽음에 대해 모르고 있다. 박형진, 그의 역할을 해야 한다.보수는 두둑하다, 보수는 두둑하다.....

현수는 여기까지 적은 후 수첩을 힘껏 움켜쥐었다. 수첩에 적은 글자들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다. 보수는 두둑하다....., 이 말까지 적을 필요는 없었다. 그럼에도 현수는 보수에 대한 말을 두 번씩이나 적었다. 그만큼 사내가 내민 돈은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 현수는 사내가 내민 돈을 가방 안에 아무렇게나 집어넣었다. 가방의 지퍼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사내가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무척이나 단단했고 어떤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져 있었다. 현수는 사내의 시선을 정면으로 보며 힘주어 악수를 했다. 현수의 어깨에는 돈이 든 가방이 평소처럼 걸려 있었다. 그러나 한쪽 어깨가 자꾸만 아래로 내려앉는 것 같아 발끝에 힘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거리를 걷는 내내 어깨가 빠질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현수는 금방이라도 가방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을 애써 참으며, 집으로 향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어디선가 지독한 악취가 풍겼다. 집집마다 내놓은 쓰레기들은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쌓여 있었다. 이젠 익숙해질 때도 됐건만,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냄새였다. 그날따라 현수의 그림자는 길게 시멘트 바닥에 늘어져 현수의 발걸음을 따르고 있었다.

오후부터 한 두 방울씩 비가 내리더니, 사방이 이내 어두워졌다. 현수의 기분은 갑자기와 버린 이른 어둠으로 낮게 가라앉았다. 창밖을 보며 그녀, 윤혜선에 대한 생각을 했다. 그녀를 만나서 박형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현수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했다. 사내는 세 시 정각에 현수를 태우러 오기로 했다. 이제 한 시간 정도가 남았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사내와의 약속을 깨고 싶었다. 하지만 사내에게 받은 돈은 이미 현수에게 없었다. 일주일 전 누나가 있게 될 요양원을 예약했다. 시설이 그다지 좋은 곳 이 아닌데도 예상한 것보다 비용이 비쌌다. 사내에게 받은 돈은 그대로 요양원 비용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돈을 받게 되면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누나는 요양원에 가면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현수는 상담원의 기계적인 설명과 희망적인 말이 아니어도, 이미 요양원을 예약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다. (다음 회에 계속)



③ 사라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위치

과거 천문기록을 통해 역사 고찰 가능

박용준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사무국장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구려는 북쪽에 신라는 지금의 경상도 지방에 백제는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에 존재했다고 배워 왔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박창범 교수는 한단고기와 삼국사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중에서 일식현상과 천문학관련 현상들을 모두 뽑아서 연구하여본 결과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가 아닌 중국대륙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논문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다음은 박창범 교수의 이야기다.

한단고기와 단고기사는 단군조선시대의 특기할만한 기록이 많다. 일식에 관한 기록 10건과 화성고 수성, 금성, 목성, 토성 다섯 개의 별이 나란히 모여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한 오성취루 현상 1건, 강한 썬열 현상이 그것이다. 이 기록은 우리나라만의 기록이며 그 외에도 24건의 자

연기록이 더 있다. 한단고기나 단고기사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사서의 기록은 4천년이 넘는 기록이다. 중국은 2800여 년 전부터의 관측기록이 있고 일본은 1400여 년 전부터의 기록이 있을 뿐이다. 서양은 망원경을 만들어 관측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 기록이 300~400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도 전문적이고 지속, 체계적으로 천문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3국뿐이다.

BC 1734년 해질녘, 초승달과 함께 다섯 개의 별이 나란히 모인 아름다운 장관은 흔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선조들도 기록에 남겼을 것이다. 오행성(화성, 수성, 금성, 목성, 토성)이 근접한 특이한 현상을 고도로 발달된 현재의 기계문명을 이용하여 태양계의 원리를 역 추적하면 단군조선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된다.

삼국사기에만 있고 어떤 나라에도 없는 현상이 실제였는지의 여부

를 과학적 수치로 가려보면 실제로 관측해서 기록했는지의 사실여부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라 때 '금성이 달을 먹었다.' 라는 기록은 별들은 고정되어 있고 달이 움직여 행성을 가렸다는 말이다. 이 사실과 2005년 7월에 금성과 달의 위치가 가까이 접근되는 사실을 두고 달이 행성에 근접하는 시점부터 역 추적한 결과 당시의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록임이 밝혀졌다. 금성에 대한 8개의 기록 중 7개가 중국에는 없는 기록이고 목성기록을 포함해서 17개의 천문현상기록대부분이 실제 일이 드러났다.

일본이 삼국사기기록을 믿기 어렵다고 했으나 어느 나라보다도 정확하게 실제로 관측해서 기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서기록은 서기 201년까지의 기록은 있으나 201년부터 500년 동안의 기록이 없다. 천체변화에 대한 기록 분석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는 해와 달의 관계로 관측한 장소의 경도는 알기가 어

렵지만 위도는 금방 알 수 있다. 그러한 실험결과 삼국의 위도가 다르게 나왔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는 다르게 신라는 양자강 유역이고 백제는 발해만 지역, 고구려는 몇 개 안나오지만 위도 상으로 적어도 신라나 백제보다 위쪽임을 알 수 있다. 이 의문은 선조가 천문기록을 통해 우리 후손에게 남겨준 풀어야 할 숙제다.

1910년 일본 학자들이 삼국사기의 기록을 중국 것을 베껴다 썼다고 주장했으나 컴퓨터로 세 나라 사서 기록을 역으로 추적한 결과 중국사서의 정확도는 65~75% 일본은 70%, 삼국사기는 80~90%의 확률로 우리나라의 실측 정확도가 제일 높게 나왔다. 그러함에도 단군시대가 이미 학자들 간에 청동기 시대로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단군사실 기록이 미흡하다하여 단군역사의 인정을 극복함에는 한계를 받고 있어 안타깝다.

고장률 중심의 기초 신뢰성 공학

저자 : 원형규(한성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2010년 | 2667p | 978-89-89101-68-0 | 20,000원



'고장률 중심의 기초 신뢰성 공학'은 Belcore에서 발간한 Reliability Manual을 강의 보조자료로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독자층으로 공과대학의 상위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적어도 통계 기초 이론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Belcore가 정보통신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많은 예제들이 전자 부품 내지는 통신 시스템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들이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통신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단지 공학적 배경만으로도 책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기계 시스템에 대한 고장관리 기법을 책 후반부에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일본플랜트 매니텐스 협회에서 발간한 TRM,설비관리 대책과사건을 많이 참조하였다.

신간도서안내

사건으로 본 역사

저자 : 조규태(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외

| 2010. 3. 2 | 620p | 978-89-89101-79-6 | 28,000원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를 다 경험할 수 없고, 또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각기 자기 나름의 방식과 관점으로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 즉, 지역별로 나누거나, 분야별로 나누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를 이해한다. 또한 같은 사건이라도 그 주체와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해한다. 그렇다면, 동·서양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을 통하여 역사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역사 이해의 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동·서양의 대표적인 사건에 관한 22편의 글을 모아, 본 '사건으로 본 역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본 역사'는 주제별로 보아 네 부류로 나뉜다. 제1부 '사건의 발생과 역사의 변화'에서는 동·서양에서 역사의 변화를 일으킨 특별한 사건을 다룬 글을 모았다. 제2부 '운동의 전개와 이상의 추구'에서는 한국의 독립운동, 중국의 여성운동, 서양의 종교개혁운동 등 각종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동서양의 운동에 관한 글을 실었다. 제3부 '교류의 확대와 신질서의 형성'에서는 이주와 이민, 침략과 침투로 인한 사회 질서와 신질서의 형성을 다룬 글을 실었다. 제4부 '사건의 혁신과 신문화의 성립'에서는 정치사상과 이념적 인간성, 국가의식, 풍속사상의 변화로 인한 신문화의 성립에 관한 글을 실었다. 본 '사건으로 본 역사'는 특별한 사건으로 인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를 다룬 글을 묶은 만큼 생동감이 있다. 또한 변화기의 인간과 사상의 변화를 다룬 글 모음집이어서 사상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흥미로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주·이민의 확대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프랑스와 미국의 이민에 관한 글은 타산지석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만약 당신이 장애를 가졌다면?



휠체어 앞에 야속한 학교 건물

우리학교로 진입하는 대표적인 두 입구인 창의관 쪽 정문과, 우촌관 중문은 휠체어를 탄 기자에게 모두 녹록치 않은 곳이었다.

우선 휠체어를 타고 우촌관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통해 미래관 앞으로 나왔다. 그러나 미래관 문 앞에서 학술정보관으로 가는 것이나, 창의관으로 가는 것이나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다. 도로의 턱 때문이다. 턱이 없거나 아주 낮은 곳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되니 동선은 순식간에 길어졌다.

창의관 중앙통로로 연결되는 진입로는 넓지만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도움 없이 오르기 힘들었다. 게다가 건물 중앙에 있는 문으로 직접 연결되는 진입로는 좁고 가파르다. 그리고 그 길을 겨우 오르거나 내려 자동차가 아닌 화전문과 만나게 된다. 경사

로로 올라왔는데도 90도에 가까운 커브를 꺾어야 자동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강의실로 이동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동아리방이 있는 인성관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만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휠체어를 탄 학생은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없는 것일까.

엘리베이터가 잘 되어 있는 학술정보관에선 이동이 한결 수월했다. 그러나 출력한 검색지를 휠체어에 얹어 놓아 볼 수 없었다. 검색지 프린터에서 나오는 종이는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출력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도서관 서가들 사이로 통과하는 가능하지만 가로로 꽂혀 튀어나와 있는 책은 휠체어 바퀴를 가로막는다. 맨 위 층 서가에 꽂힌 책을 꺼내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학관으로 올라가는 경사진 길은 예상대로 걸고 혼자서는 올라갈 수 없었다. 도와주는 사람마저 힘이 부치는 경사이다. 공학관 B동엔 경사로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창관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장애인 화장실 시설도 마땅치 않아 있다. 또한 엘리베이터를 타는 공간도 아주 좁아 휠체어 하나가 들어가면 금세 꼭 차버린다.

진리관은 건물 안쪽의 턱이 너무 높고 엘리베이터 자체가 없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탐구관 엘리베이터는 지하로 운행되지 않아 휠체어를 타면 매점과 지하 강의실로 이동할 수 없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건, 건물 안으로 들어서기 전까지 어느 곳 하나 만만한 곳은 없었다.

이성이 기자 sangmi@hansung.ac.kr



▲ 창의관 경사로 ▲ 창의관-인성관 통로 계단 ▲ 학술정보관 서가

“어떤 꿈을 꿀 것인지 고민하고 찾아야 해”

하반신 장애 발레교사 김수미씨

“사람들은 장애인을 보살핌이 필요한 이로 인식한다. 하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몸이 조금 불편할 뿐,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우리도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가진 김수미 씨(39)의 말이다.

김수미씨는 스물두 살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 유학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발레학원 강사로 일하던 중, 청소를 하다 4층 건물에서 떨어진 것이다. 그 후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좋아하는 춤을 출 수 없게 됐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이면 온몸에서 고통이 찾아왔다. 사고가 일어난 후 3주 만에 수술을 했지만 하반신 마비라는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의 이런 불행한 일은 남들에게 연민과 인조러움을 불러일으키지만 김수미씨는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불편해 한다. 그는 현재 ‘살롱교발레단’의 단장으로 안산, 대전, 제주도를 돌아다니며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

에도 평범한 사람보다 더 보람된 삶을 살아가며 당당히 자아실현의 길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참 불행한 일이다. 장애가 있어도 해낼 수 있는 일들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사회는 장애인의 자립보다 보호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고는 장애인을 더욱 옹크리게 한다”며 장애인과 사회의 의식개선을 요구했다.

이런 말을 당당히 하는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지부로 내려가 발레를 꿈꾸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발레 수업과 공연을 한다. 또 해외 공연과 프랑스 지부확장을 위해 해외에도 자주 나간다. 몸이 불편해 어떻게 다닐까란 생각을 하겠지만 그는 이런 일을 매번 홀로 다니며 아무렇지도 않아한다.

김수미씨는 “거의 무일푼으로 살롱교발레단 일을 시작했다. 막대한 돈 내 꿈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

다’란 말처럼 원하는 일을 위해 노력하다보니 결국 이루어 졌다.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지 않은 전공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끝까지 매달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어떤 꿈을 갖을지 고민하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진 기자 phsllian@hansung.ac.kr



매체 속 장애인만 기억하는 얼룩진 장애인의 달이 아니기를

흔히들 4월은 장애인의 달이라고 한다. 1981년부터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고, 이날을 전후해 장애인을 주제로 하는 언론사와 복지단체들의 이벤트는 홍수를 이룬다. 해마다 이 시기에 집중되는 떠들썩한 행사들을 볼 때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갖는 관심이 이렇게 많았는지 새삼스러울 정도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TV나 책을 통해 장애인을 접한다. 그 속엔 어려운 환경을 딛고 꿋꿋하게 장애를 극복해 감동을 주는 몇몇의 장애인이 등장한다. 그러나 실상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은 그다지 특별하지도 특출나지도 않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을 꾸며 살아간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이다. 흔히들 의식주라고 부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돈을 필요

로 한다. 보통의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일자리를 찾고, 요즘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가 취업 걱정인 것처럼 장애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장애인들도 직장을 가지길 원하고, 근로를 통한 대가로서의 소득을 원한다. 노동 끝에 얻는 성취감과 사회생활을 통해 좋은 동료들을 사귀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들에게 쉽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2008년 장애인의 실업률은 8.3%로 같은 기간 전체실업률이 3.3%인 것에 비해 약 2.5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을 받기 일쑤다. 절반가량인 49.5%의 장애인들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장애인은 대학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류전형

과 면접 등 비장애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통보를 받고도 출근 하루 만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해고당한 경우도 있다. 회사에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스로 소득별이가 어렵다면 이전 국가가 나설 차례다. 장애인 중에 장애인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장애인의 90% 이상은 교통사고 등으로 후천적 장애인이 되고, 장애인에게 장애를 느끼게 하는 것은 세상의 차별적인 시선과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 등 사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단체들은 10여 년 전부터 장애인연금 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이 통과되었고, 이로써 7월부터 장애인연금 도입이 확실시 되었다.

그러나 촉매를 들어야 할 이 순간에 장애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없애고 2만원 더 없이 최대 15만1,000원을 주는 이름뿐인 연금 제도이며, 2백4십여만 명의 전체 장애인의 13%만이 해당되는 반의 반쪽도 안 되는 연금이기 때문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어 낸 성과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무늬만 장애인연금인 것이다.

요즘은 1등만 기억하는 우리사회 세태에 대해 많이 언급된다. 우스갯소리로 시작했지만 곱씹어 보면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2010년 4월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은 그렇게 큰 꿈을 꾸지 않는다. 1년 중 하루, 1년 중 한 달만 반짝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부디 올해 장애인의 달은 ‘1등 장애인만 기억하는’ 얼룩진 장애인의 달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남궁 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연구실

신간도서안내

AutoCAD의 이해

저자 : 조자연(한성대학교 미디어디자인컨텐츠학부 인테리어전공)

2010. 2. 26 | 305p | 978-89-89101-76-5 | 20,000원

“AutoCAD의 이해”는 저자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캐드 강의를 하면서 썼던 강의자료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늦은 나이에 어렵게 캐드를 배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한 저자의 고민이 녹아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도면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명령어를 추렸다. 명령어를 많이 알아두면 편하지만, 사실 초보 단계에서는 명령어 하나하나가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 책에 있는 명령어만 익히면 되면 그리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둘째, 건축, 인테리어디자인 실무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필요 명령어를 도면 그리는 순서를 고려하여 배열하였다. 기초 명령어부터 시작하여 빈도 높은 명령어, 그리고 도면 출력까지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꾸몄다.

셋째, 각 명령어마다 설명, 그림 그리고 예제물이 등 3단계를 두었다. 설명 읽기, 따라서 연습하기 그리고 예제를 풀다보면 하나의 명령어가 자연스럽게 익히지도록 하였다.

-머리말 중에서-

헌법학 상 헌법총론

저자 : 김백유(한성대학교 행정학과)

2010. 3. 5 | 628p | 978-89-89101-77-2 | 40,000원

“헌법학 상 국가조직론,은 저자의 헌법학(중 기본권론) 및 헌법학(하 국가조직론)에 이어 출판하는 책이다.

헌대 복리 국기에 있어서의 국가작용은 그 기능이 고도로 다양화·기술화·전문화 되어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무한한 실정법이 제정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판례 통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이론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본 교재는 독자들에게 헌법학의 국가조직론(동치 구조론)에 관련한 내용이 단순한 교과서적내용으로서 관념적·형식적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이들 이론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위 살아있는 헌법학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며,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 및 헌법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의 다른 교재에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다루지 않는 부분, 특히 추상적·관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좀 더 구체적·실용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교재는 저자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타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박사과정 연구원 그리고 Law School 등에서 헌법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머리말 중에서-

따라하기로 배우는 액세스 2007 데이터베이스 기초와 활용

저자 : 유재건(한성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2010. 3. 1 | 344p | 978-89-89101-78-9 | 17,000원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접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 기본개념의 이해와 Access 2007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능력 배양을 학습 목표로 삼아 저술되었다. 시각적이고 직관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540개의 그림과 160개의 따라하기 예제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step by step으로 예제를 따라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이해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이 익히지도록 구성하였다. 본 교재는 기본개념의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Access 예제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머리말 중에서-

한성대학교 출판부

LATTE ART 이야기

“Espresso에 펼쳐진 열정”



▲라떼아트 하면 떠오르는 하트가 그려진 커피



▲라떼아트에 임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열정을 엿볼수 있다

커피가 국민음료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의 커피는 단순히 마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치열한 생활에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달콤한 휴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커피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커피를 마시는 상황과 분위기를까지 향유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내커피 시장에서의 소비량의 90%는 인스턴트커피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 7월 스타벅스는 신세계그룹과 제휴를 맺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면서 2000억대에 달하는 한국 커피시장에 본격적으로 공략에 나섰다.

최초의 스타벅스는 서울 이화여대 근처 100석 규모의 1호점으로 이는 국내에 들어온 첫 외국 커피전문점으로 기록되고 있다. 진출 당시에는 손으로 내리는 드립커피가 있

커피 한잔에 담긴 바리스타의 열정

있지만 국내 에스프레소 업계에 경쟁자가 없던 탓에 빠른 시일 내에 커피시장을 점거하며 한국의 커피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새로운 문화에 적극적인 한국인들의 기질에 힘입어 에스프레소 커피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현재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커피 자체를 즐기기 위하여 커피전문점에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낯설지 않게 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커피와 함께 제공되는 예술적인 서비스로 소비자의 행복감을 더한 라떼아트의 시대도 열

리고 있다. '라떼(Latte)'란 이탈리아어로 '우유'를 뜻하고, '아트(Art)'란 미적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활동이다. 즉 커피(에스프레소, Espresso)에 스팀우유를 이용하여 나뭇잎, 꽃, 동물 등을 표현하는 창작활동을 '라떼아트'라고 한다. 10여년 전 이탈리아에서 한 바리스타가 에스프레소 커피 위에 우유를 따르다 나뭇잎 모양이 생겨나 것을 보고 개발했다는 라떼아트는 드라마 '커피프린스'의 방영 후 더욱 인기를 끌며 해마다 국제대회가 열리고 문화센터나

학원에 전문적인 강좌가 개설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카페라떼나 카푸치노 등의 응용메뉴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스팀밀크인데 곱게 거품을 내면 밀도가 단단해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커피교육센터인 'Reborn커피'의 이종희 바리스타는 "이러한 고운 거품은 소위 '벨벳거품'이라고 일컬어지며 라떼아트의 필수요소로 작용한다. 이 외에도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낼 때 순간적으로 커피를 불리고 압력으로 밀어내어 생기는 황갈색의 크림인 소위 '크레마'로 불리는 것이 라떼아트에 있어서 도화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 "라떼아트에 있어서도 하나의 필수요소는 타이밍"이라며 "에스프레소와 우유의 흐름을 이용해 단숨에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요소의 삼박자가 맞으면 예술적인 라떼아트 작품이 나온다"고 이야기 한다.

그는 "라떼아트는 커피 한 잔에 바리스타의 열정이 담겨 있는 모든 기술품의 집합체"라며 "외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지만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한국인 바리스타들은 손재주가 좋아 라떼아트에 강점을 보인다"고 말했다. 라떼아트의 모양은 하트와 나뭇잎에 이어 사자나 토끼, 꽃, 희어로 등 다양한 창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하나의 작품은 숙련된 바리스타에 의해 30초내로 완성된다. 재료는 에스프레소 커피와 스팀우유, 필요에 따라 초코시럽을 사용해 커피에 붓고 그들의 손놀림으로 다양한 작품이 그려지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커피 위에 펼쳐진 바리스타의 열정을 마주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영화 읽어주는 여자

“무너져버린 노란 집의 꿈”

반 고흐 <노란 집>



빈센트 반 고흐의 10년이 채 안되는 짧은 시간동안 그가 내뿜었던 광적인 예술 세계, 끝없이 감내해야 했던 가난과 고통의 삶의 드라마, 그리고 사후 기록적인 판매 가격을 올리며 세기를 초월해 인류에게 가장 인정받는 예술가로 남은 반 고흐의 신화들은 후대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귀감이 되어왔으며, 보는 이들의 가슴 속을 파고들어 진한 감동과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 장로교 목사인 테오도루스 반 고흐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다. 짧은 시절 오랜 시간 방랑, 회의, 그리고 좌절의 과정 속에 반 고흐는 1880년 스톨일급 살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되며, 화가로서의 길을 선택하였다. 1888년 고흐는 프랑스 남부 아를(Arles)로 옮겨 전원풍경의 소재를 찾아 색채와 빛이 충만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한편, 그 곳에서 이상적인 예술가 공동체 설립을 향한 원대한 야망을 갖고 노란 집을 임대해 그 공간에 정열을 쏟는다. 그 노란 집은 2층 건물에 4개의 방이 있고, 집 외벽이 노란 페인트로 칠해진 별이 잘 들며 고흐의 이상과 꿈이 투영된 집이었다. 그는 그 집에 화가들을 모아 공동생활을 하며 생활비의 부담도 줄이고 그림에 대해 교류도 할 꿈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작품 <노란 집>은 그가 남긴 많은 자화상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한다. 그의 진정한 모습은 '얼굴' 못지않게 그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통해 훨씬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존경하고 믿었던 동료화

가 고흐를 불러들여 함께 미래의 그림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공동생활은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고, 반년도 채 살지 못하고 노란 집을 떠나게 된다. 끝내 고흐는 고흐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귀를 자르고 말았으며, 그 원대했던 야망도 결국 끝이 나게 되었다. 더욱이 이 시기에 그는 그림을 전혀 팔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극심히 가난했고, 환각증세와 함께 정지적으로 재발하는 신경성의 발작 질환으로 고생했다. 계속되는 광기와 환각증세로 여러 번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그는 정신적 고뇌와 압박이 점점 더 심해져 7월 29일,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이틀날 동생 테오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의 이틀과 예술 세계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직면해왔던 질풍 같은, 드라마 같은 삶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며 불굴의 의지로 일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무관심과 참을 수 없는 고독은 건디기 힘들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사후 그의 영향력은 인상주의, 야수파와 추상주의, 표현주의에 걸쳐 거대한 것이었으며, 20세기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귀감이 되어 오고 있다. 21세기에도 그의 붓터치 속에 살아 숨쉬는 듯한 예술정신이 현대인들의 감수성을 일깨우며, 그가 내뿜었던 광기의 불꽃은 꺼지지 않은 채 진정한 영웅으로서 반 고흐의 신화는 계속되고 있다.

조주현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한국인의 80.2% 험담한 경험있어

“뒷담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

얼마 전, 기자에게 한 친구가 상담을 요청했다. 내용은 즉슨, 의자하고 믿고 지내던 친구가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여러 번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다른 친구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큰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었다.

여자 셋 이상이 모이면 집사가 깨진다는 속담이 있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수다의 주제는 뒷담화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뒷담화는 '담화'와 우리말의 '뒤'가 합쳐져 생긴 말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험담하는 뜻의 한자어인 '뒷담화'로 거슬러온다. 예전에는 음습하고 부정적인 행동으로 묘사되어 온 뒷담화가 언제부터인가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행동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과 미국 직장인 1만여명을 대상

으로 한 '직장 동료 험담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 80.2%의 한국 직장인이 험담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22.1%의 미국인보다 약 4배 많게 집계되었다. 왜 우리는 뒷담화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우리학교 학생생활상담소의 홍성미 상담사는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며 성장한 나라이다. 나라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억압, 억제하는 문화로 의견수용이 불가피하고 욕구가 좌절되는 일이 많았다. 여러 불만이 쌓이다 보니 더욱 뒷담화에 종조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뒷담화는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다. 욕구좌절로 인한 걱정, 불안으로 인해 이야기가 험담으로 빠지는 것"이라며 "이것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일어나는 현

상이기도 하다. 서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입장이 달라져 오해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대인의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나친 경쟁심이 발동해 타인이 나를 잊지르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뒷담화를 함으로서 불안한 마음에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의사소통의 수단인 언어(言語)는 그 한자에서도 보아 알 수 있듯이 품나 외라는 '나를 말한다'라는 뜻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뒷담화는 단지 견해일 뿐이다. 이러한 문제과 고민을 하고 있다면 개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지하게 소통을 시도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이예진 기자의



(그 후) 나츠메 소세키

“당신의 현실은 안녕하십니까?”



일본 사회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주인공 다이스케는 외국인서를 읽고 세계미술품에 조예가 깊어 꽃을 좋아하며 문화를 즐기는 청년으로 등장한다. 그는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유유자적 생활을 하는 소위 백수이다. 그는 사색을 즐기며 취미생활에 빠져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국가공무원로 광장히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아들에게 항상 성실과 열의를 강조하며 직업을 가지라며 잔소리를 하지만 다이스케는 자신은 직업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귀한 부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에게 어느 날 유년시절 친구인 히라오카가 방문한다. 친구의 아내인 미치오와 다이스케는 유년시절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히라오카의 고백으로 인해 감정은 사그라지고 만다. 결혼 후 방탕한 생활을 탓에 빚을 지고 일자리를 구하려 다니던 히라오카는 순수했던 감정을 잃어버리고 속물적인 인간으로 변해 가정을 등한시 하게 된다. 미치오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켜보던 다이스케는 그녀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옛 정을 느끼게 된다. 본문 중에서 "평소 다이스케는 만일 감자를 다이어트보다 소중히 여기게 된다면

인간을 끝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사진으로 본 사람을 직접 알아보는 것은 어렵다. 앞으로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서 금전상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면 그는 싫어도 다이아몬드를 내던지고 감자를 매달려야 한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서는 자연으로서의 사랑만이 남을 뿐이다. 그 사랑의 대상은 남의 아내였다."라는 미치오와 살아가기 위해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구절이 나온다. 그는 불륜에 대한 정당성을 "그녀를 사랑한 것은 자연"이라는 명목으로 피해가려 했고 그녀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가족과 의절하고 친구와의 절교도 감행한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그는 미치오가 몸져누웠다는 사실에 여전히 일자리를 찾기 위해 길거리로 나선다. 머릿 속이 다 터버릴 때까지 전차를 타기로 결심하고 전차에서 소설은 막을 내린다.

다이스케는 아버지가 강조하는 성실성과 열의를 외면하며 게으름과 무위를 자랑스럽

게 여긴다. 이런 모습이 소설에서는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는 시대와는 반대로 반사회적이고 부적응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어찌보면 부유사대파 아들이 무위도식을 즐김으로써 스스로의 정신적 우위를 지켜내기 위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소설이 발표된 1909년은 메이지 42년으로 서구 자본주의의 도입과 더불어 노동과 생산이 사회의 중심가치가 되었고 젊은이들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입신출세주의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100년이 흘러 우리들이 마주한 현실이 되었다. 다이스케라는 인물은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직업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귀한 부류의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대변함으로써 이 세대의 청년들에게 조그만 위안을 보내며 현실에서의 적응한다는 것의 당위성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사진이야기



저녁조를 학교에서 수업을 끝내고 무심결에 하늘을 봤는데, 달과 정자(정자)가 너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김현호(경영 3)